

화순 국화향연, 어린이 마음 사로잡아

대형 로봇 로드쇼·김삿갓방랑체험 인기 마블·드래곤볼 등 전시...어른들 받길도 멈춰



화순군은 지난달 25일부터 열린 국화향연이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용하고 정적이라 어린이들에

남산 입구를 지나 꽃 동산을 들아가는 입구에는 김삿갓 방랑체험스가 있다. 이곳을 지나가는 어린이들은 나 할 것 없이 김삿갓의 도표를 입고 샷갓을 쓴다.

붓집을 짊어지고 지방이로 땅을 짚으며 남산 공원을 누비는 모습이 즐거워 보인다. 김삿갓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TV속 사극에서만 보던 복장을 하고 남산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찍는다.

거대한 로봇이 서 있는 유인로 붓로드쇼 부스 앞은 사진 촬영의 명소가 됐다. 거대한 로봇이 샷갓을 머리에 걸치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린다. 가만있던 로봇이 움직이면 어린이들은 놀라면서도 즐거워하며 부모님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다.

남산 중앙에 위치한 화순시내마에는 어린이들을 즐겁게 할 각종 장난감과 피규어 5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마

블과 디시의 히어로는 물론 인기 만화 원피스의 캐릭터 피규어들이 장식장 안을 채우고 있다.

특히, 어릴 적 즐겨 봤을 만화 영화 건담과 마징가Z는 물론 만화책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의 피규어도 전시돼 있어 아이와 같이 온 부모님들의 동심도 자극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많은 분이 방문해 5.2ha의 넓은 국화동산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 국화향연은 지난달 25일 개막해 오는 10일까지 17일간 펼쳐진다. 패밀리존, 명품존, 투어관광존, 사랑존의 4개 테마로 구성된 국화동산에는 1억2000만 송이의 국화꽃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여주시농업인대학, 졸업생 72명 배출

농업 전문 인력의 산실인 여주시농업인대학이 졸업생 72명을 배출했다.

여주시는 지난달 3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내빈과 졸업생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대학 졸업식을 열었다.

이날 졸업식은 학사보고, 농업인대학 UCC 상영, 졸업증서 수여 및 시상,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졸업생들은 지난 8개월간의 교육 과정이 담긴 UCC 영상을 보며 웃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올해 농업인대학의 학생장을

맡았던 이현연 씨는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고, 서민호 씨 등 3명은 우수시장을 받았다.

여주시 농업인대학은 지난 2006년 설립됐으며, 졸업생은 986명에 이른다.

올해는 '지역농업소득반'과 '도시농업전문가반'에 각각 40명이 입학해 아열대작물 재배기술, 마케팅 전략, 농산물유통, 텃밭 운영관리 등을 배웠다.

교육은 총 23회, 100시간을 운영했고, 이중 80%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 요건이 충족됐다.

여수=송기홍 기자

고흥군, 농업인 실전 전기용접 교육 실시

고흥군은 농한기를 맞이하여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 활성화 촉진과 인건비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농기계인대사업소 야외 실습장에서 실전 전기용접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용접 교육은 농업현장 및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밀착형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며, 교육 대상은 관내 농업인 대상 20명 선착순으로 접수기간은 4일~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입대사업소에서 접수를 받아 비드쌓기, 가용접, 맞대기용접, 필렛용접, 가스절단 등의 내용으로 5일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한윤섭 기자

영광군, 농업분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선제적 대응계획 마련

군농업발전협의회, 대책 논의·정책 건의 강화

영광군은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농업분야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농업과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군 차원의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영광군농업발전협의회'에서 농업분야 선제적 피해 대응 대책을 논의하고 농업분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대정부 정책 건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인 경영안정 시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인에게 사회적 보상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영광군 농어민공익수당'을 2020년부터 시행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군 주요 품목인 고추, 양파, 대파에 대해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태풍·가뭄 등 각종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재해·재난 시 '영광군농업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준성 군수는 "농업은 우리 군 근간사업이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매우 안타깝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업분야 체질개선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농업단체·관계기관·관계부서와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연 기자

담양군,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공모전

2개 분야 우수사례 선정 '쾌거'

제도정책분야 최우수 지자체 선정, 재정인센티브 받아



담양군이 10월29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제도정책 및 주민자치 2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사)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지난 8월부터 제도정책,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네트워크 등 5개 분야로 진행했으며, 전국 지자체 등에서 총 402건의 사례 접수, 심사를 거쳐 8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담양군은 이날 제도정책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창평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제도정책분야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담양군이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재정인

센티브를 받게 됐다.

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민선 6기부터 담양식 농촌형 마을자치 실현을 목표로 군정을 추진해 온 점, '담양군 주민자치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풀뿌리 지방자치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자치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된 창평면 주민자치회 역시 창평고를 전통음식축제와, 창평면 주민총회, 지역발전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이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며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상향식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과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학습장,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자치발전 대상 수상



구례군은 지난달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김순호 구례군수가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 더 좋은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안제 한국자

치발전연구원장과 심사위원장이 이달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단체장 부문에서 13명의 시군구청장이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례군은 소통과 협력으로 혁신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수가 직접 군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대화하는 현장소통, 주민소리함 설치와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 지역발전혁신협의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도를 높인 정책소통 등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어려운 지역현안을 해결해 가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세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